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23.(목)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 한자리에....

현장 경험 나누며 전문성 높인다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년 자살예방 실무자 멘토-멘티 역량강화 콘퍼런스」 개최 -

- 멘토-멘티 교류, 우수사례 발표, 실무 토의 통해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체계 마련 -

【관련 국정과제】 85-4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 이하 재단)은 오는 7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 연수원에서 「2026년 자살예방실무자 '멘토-멘티 역량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콘퍼런스)는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현장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살예방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규 실무자의 안정적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선배 실무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및 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살예방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1일 차에는 김혜민 작가가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위한 좋은 질문의 힘’을 주제로 자살예방실무자들의 소진 예방과 마음 돌봄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시상식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상(1점)과 재단 이사장상(2점)을 수여한다. 이어 우수사례인 ▲주민주도형

동료지원 기반 자살예방 모델 구축, ▲직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러닝크루 '모두런', ▲생일 한상차림을 활용한 고위험군 관계 형성 노하우 등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실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공유 홍보벽을 설치하여 실무자들이 다양한 지역별 우수사례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회의 2일 차는 신규 실무자들의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한 선배 실무자의 현장 질의응답으로 시작된다. 이후 ▲사례관리, ▲위기상담, ▲유관기관 협조, ▲스트레스 관리, ▲행정실무 등 주제별 밀착 토의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아래, 이 같은 자살 사망자 감소 추이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자살예방관(부단체장급 이상)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보건소 중심에서 복지·고용·보건을 포괄하는 전담조직 중심의 대응체계(신규 전담 공무원 293명 배치 완료)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연내 200명으로 늘려 응대율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 시스템도 연내 개발·도입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적 수준의 고위험군 대응 및 지원 상황관리, 신속한 위기 개입 및 사망자 분석, 안정된 일시보호 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최일선 실무자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촘촘히 연결되어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진 방지 사업 운영, 추가 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자살예방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심리적 회복력이 곧 국민 생명안전망의 중요한 기반이다” 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선·후배 실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마음을 돌볼 뿐
 아니라 전국 자살예방 현장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자살예방실무자 멘토-멘티 역량강화 콘퍼런스(회의) 포스터
2.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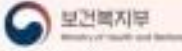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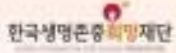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044-202-3890)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044-202-3892)
협력 기관	총괄협력사업부 지역협력팀	책임자	부 장	위준영 (02-3706-0530)
		담당자	팀 장	이석영 (02-3706-0471)



사람을
더하세요

2026 자살예방실무자 멘토-멘티 역량강화 콘퍼런스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 7월 24일(금) [1박 2일]
장소 재능교육연수원 (충남 천안시)

• 세부 프로그램 •

1일차 7.23.(목)

시간	프로그램
14:00~14:30	개회식
14:30~15:30	주제강연 김복민 PD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위한 좋은 질문의 힘)
15:30~15:40	휴식
15:40~16:20	우수사례 시상식
16:20~18:00	우수사례 발표
18:00~19:00	숙소 배정 및 휴식
19:00~21:00	석찬(소통·화합의 시간)

2일차 7.24.(금)

시간	프로그램
07:00~09:00	조식
09:00~09:20	오프닝 세션 (멘토-멘티 질의응답)
09:20~10:50	분과별 토의
10:50~11:00	휴식
11:00~11:40	토크콘서트
11:40~12:00	폐회식
12:00~13:00	중식 및 귀가

부대행사

포토부스, 성과공유 홍보월, 럭키드로우 등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 주요 내용

기관명	주제	주요내용
청주시상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주도형 동료지원 기반 자살예방 모델 구축	• 시니어주거복지지원단을 조사원으로 양성하여 주민이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외로움 감소가 우울 및 자살위험 감소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위한 표적 개입(정기 안부 확인 등)을 실시함. • 참여자들의 외로움 지수가 19% 감소함에 따라 우울 49.5%, 자살위험 24.3%가 동반 감소하는 객관적 성과를 확인하여 정책 모델의 기반을 마련함. • 멘토와 멘티가 가설 설정부터 효과성 검증까지 직접 주도하며, 단순 사업 수행을 넘어 조직 내 데이터 기반의 근거 중심 실무 문화를 확산시킴.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러닝크루 '모두런'	• 실무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한 러닝 활동을 지역주민 참여형 러닝크루 「모두런 (Do Run)」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 •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실무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종사자를 위해 시작한 작은 활동이 귀농·귀촌 청년 등 지역 주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예방하는 2025년 지역특화사업으로 크게 성장함.
천안시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생일 한상차림을 활용한 고위험군 관계 형성 노하우	•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호를 반영한 '생일 한상차림' 물품을 준비하고,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치료 자원을 연계함. • 물품 지원을 넘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여, 대상자와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고 사례관리 참여도를 높임. • 현장의 울림: 스스로를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 여기던 대상자가 생일 축하를 통해 '나도 살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을 바꾸는 등, 진심 어린 관심의 힘을 증명함.